

KÓKKOS 8

2026

•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최영권 • 편집주간 이강동 •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번 32 • TEL 02-950-5401 • www.kbue.ac.kr •



AUGUST 2026

VOL. 292

▲ 2026 밀알캠프를 성공적으로 이끈 재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일정을 마친 뒤 한자리에 모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프로그램 진행, 생활 관리와 상담 등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캠프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이다. 공동체에 사랑과 헌신을 보여 준 밀알영웅 133명.
[관련 기사 2면]

2026년 밀알청소년·어린이캠프 295명 참가

7월 27일부터 1주간 - 자원봉사자 133명

2026년 밀알청소년캠프(7월 27일~ 29일)와 어린이캠프(30일~31일)가 무더위 속에서도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청소년 캠프

캠프는 개회예배로 시작하였다. 저녁 집회에서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현실에서 겪는 신앙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연을 숙소에서 방상으로 청취, 공감을 안겨 주었다. 각 교회 인솔 교사가 미래 세대 전도와 사역의 고민 등을 나누는 자리도 모두에게 의미를 더 해줬다.

개회예배에서 캠프 디렉터 김창현 목사(교목실)는 '버팀: BUT, HIM'(행 1:8)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그를 버티게 하셨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했다.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였다.

청소년캠프에는 청소년 70명 인솔교사 34명, 도합 104명이 참가하였으며 자원봉사자 68명이 이들을 섬겼다.

어린이 캠프

캠프 디렉터 반우형 목사(일립교육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요'(행 1:6~8)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증인으로 가르치셨고 증인이 될 권능까지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증인이 전해 준 결과이다.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였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레크레이션으로 마음을 열었고 시원한 물놀이에서는 여름 캠프의 시원함과 기쁨을 마음껏 즐겼다. 그룹별 모임과 샌드아트 공연도 여운을 갖게 하였다. 어린이 캠프는 어린이 131명과 인솔교사 60명, 도합 191명이 참가했으며, 자원봉사자는 65명이었다.

이번 밀알캠프에는 재학생 자원봉사자 133명(청소년 68명, 어린이 65명)의 헌신과 사랑으로 가능했다. 밀알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133명의 수고를 주님은 기억해 줄 것이다.



▲ 저녁집회 찬양인도자들



▲ 인솔교사들에게 수료증 전달



▲ 참가한 청소년들을 배웅하는 자원봉사자들



▲ 샌드아트 공연



▲ 공과공부



▲ 물놀이

2학기 성적장학대상자 발표

교내 외 장학 298명에게
3억 6천여만 원

오성균(AI 3) 전체최우수성적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대상자가 29일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대상자는 성적장학과 외부장학 등 298명이며 장학금 총액은 3억 6천여만 원이다. (국가장학금 제외)

영예의 '전체최우수성적장학'은 오성균(AI3) 학우가 차지하였다. 최우수성적장학은 정보영(성서4) 학우 등 19명, 우수성적장학은 이시은(사복4) 학우를 포함한 38명이 선정되었다.

간호 3학년은 실습에 참여하고 있어 8월 10일 선정될 예정이다.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최우수성적장학 ▲오성균(사진, AI 3)

◆ 최우수성적장학

성서학과

▲정보영(4) ▲이기진(3) ▲김하진(2) ▲최지민(1)

사회복지학과

▲이지학(4) ▲하예솔(3) ▲유동일(2) ▲전인화(1)

영유아보육학과

▲박나운(4) ▲차승민(3) ▲하수림(2) ▲박솔비(1)

간호학과

▲손진서(4) ▲홍정인(2) ▲김하은(1)

AI융합학부

▲김지호(4) ▲오하준(3) ▲박현진(2) ▲최예성(1)

◆ 우수성적장학(2등/3등)

성서학과

▲이효정(4) ▲남궁이레(4) ▲김예지(3) ▲안차남(3) ▲이예인(2) ▲김경선(2)
▲이세은(1) ▲이아엘(1)

사회복지학과

▲이시은(4) ▲서지영(4) ▲김영광(3) ▲최명훈(3) ▲황유선(2) ▲여준영(2)
▲김리홍(1) ▲송유림(1)

영유아보육학과

▲변해원(4) ▲오수빈(4) ▲박소하(3) ▲송환희(3) ▲김다혜(2) ▲정소진(2)
▲김은별(1) ▲이민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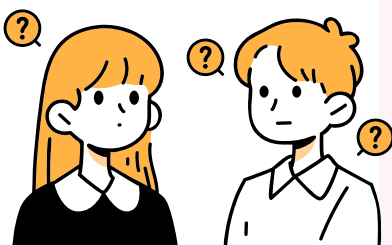
간호학과

▲조정현(4) ▲고서현(4) ▲이효은(2) ▲김경민(2) ▲박서진(1) ▲권영서(1) AI

융합학부

▲박세윤(4) ▲제갈륜(4) ▲변하연(3) ▲이동연(3) ▲이은혜(2) ▲김윤하(2)
▲나경문(1) ▲소하연(1)

무감독시험 비율
계속 내리막
성서대학 맞아?



우리 대학 신앙훈련의 일환인 무감독시험 비율이 계속 내리막이다.

2026-1학기 중간고사 무감독시험 비율은 대상강좌(지필) 148개 중 57개가 무감독시험을 실시해 38.5%를 기록하였고 기말고사는 147개 강좌 중 55개가 무감독 37.4%이었다.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40.5%(116강좌 / 47 무감독), 기말고사는 35.5% (93강좌 / 33 무감독)가 무감독시험을 보았다.

26-1학기 기말고사 기준 무감독시험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일립교육과(90%)와 성서학과(85.7%)이고 다음이 영유아보육학과(57.1%), 기초교양교육과(27.3%), 간호학과(27.3%)는 동물, 사회복지학과(5.3%) 순이었다. AI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 컴소학과 등은 무감독시험이 한 과목도 없었다.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 제28주기 추모예배

박태수 목사
‘설립자가 보여준
신앙과 교육 철학 계승’



▲ 설립자 추모예배를 마치고 동문들과 성서공동체가 함께 하였다.

일립 강태국 박사 제28주기 추모예배가 24일 오전 11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강규성 목사(부총장)의 사회로 박태수 목사(교목실장)가 ‘복음에 붙들린 생애’(빌3:7~1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태수 목사는 말씀을 통해 “설립자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헌신한 삶이었다. 독립운동과 목회, 교육의 모든 여정에서 민족복음화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성경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확신으로 우리 대학을 성경 중심의 건고한 기틀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전하였다.

강우정 이사장은 “설립자가 설정한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을 향해 우리 모두가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성서 중심의 같은 방향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은 “모든 공동체는 뿌리가 중요하다. 교파 중심, 교권 투쟁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른 설립자의 뿌리를 이어 가야 한다”고 축사하였다.

반세호 목사(성서대학교교회 담임)는 강태국 박사가 남긴 복음과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였고 이우근 목사(중앙성서교회 담임)가 천국 운동에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며 축도하였다.

설립자 묘소 방문 예배 28주기 맞아 학교 주요 보직자들



▲ 학교 주요 보직자들이 설립자 묘소에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

최정권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22일 포천시 일동면 설립자 묘소를 방문하여 예배를 갖고, 대학의 설립 정신과 사명을 다짐하였다.

예배는 박태수 교목실장의 인도와 최정권 총장의 헌화로 시작 되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고 김중완 행정본부장이 설립자의 헌신을 기리며 한반도 복음화의 사명에 충실히 임하겠음을 기도하였다. 박태수 목사는 설립자의 저서 「나의 증언」을 인용, 설립자의 교육의 뜻을 받들어 복음전도자 양육에 열심히 일할 것을 강조하였다.

일행은 이어 강희정 학장의 묘소로 옮겨 장인순 교수의 기도와 함께 인재 양성에 헌신했던 고인의 교육 이념과 사명을 굳건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강우정 이사장 ▲ 최정권 총장 ▲ 박태수 교목실장 ▲ 권경만 기획실장
▲ 최육열 입학국제교류본부장 ▲ 김중완 일립행정본부장 ▲ 임지영 평가
감사실장 ▲ 장인순 산학협력단장 ▲ 정희진 사무국장 ▲ 이강동 코코스
편집주간 ▲ 박태용 시설팀장 ▲ 권오섭 밀알훈련센터 관리담당 ▲ 박문홍
동문

고난과 불편을 이겨내는 밀알훈련

8월 19일~28일까지
매차 2박 3일씩 3차



▲ 포진지 옆 계곡으로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2026년 밀알훈련이 8월 19~28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매차 2박 3일씩 3차로 진행된다. 약 300명의 훈련생이 참가할 예정인데 최종 숫자는 수강신청(8월 10일~13일)이 끝난 후 확인할 수 있다. 밀알훈련은 1차(19~21일), 2차(24~26일)와 3차(26~28일)로 나뉘지며 훈련생들을 돕고 섬겨줄 자원봉사자로 133명(교직원 48, 학생 85)이 참여해 밀알훈련을 돕는다.

밀알훈련은 우리 대학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같이 생활하며 고난과 불편을 이겨내는 훈련이다. 훈련 일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예배, 노동, 에코 트래킹, 성경읽기, 묵상, 토론과 간증으로 이어지며 성서인의 다짐에도 참여한다. 훈련생들은 7개 조로 전공과 학년, 성별과 관계없이 편성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소통, 섬김의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훈련생들은 장마와 폭염을 고려하여 갈아입을 여벌의 옷과 모자, 신발(등산화)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밀알훈련에 관한 문의는 일립교육과 (02-950-5446)로 하면 된다.

밀알훈련 자원봉사자 교육

‘밀알훈련은 왜 하는가?
생활을 통해 섬김을 보여주는 교육’

밀알훈련 자원봉사자 교육이 15일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70명이다.

밀알훈련은 왜 하는가? 김웅기 일립교육과장은 밀알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강의하였다. 그는 훈련생의 인솔 단계부터 생활지도, 예배 지원 등을 상황 중심으로 안내하였다.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운영요원이 아니고 훈련생들에게 생활을 통해 섬김을 보여주는 신앙의 동반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기간 중 폭염과 장마가 예상된다는 참여자의 안전제일 및 사망 완수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밀알훈련은 우리 대학의 4대 신앙 훈련 가운데 가장 핵심이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는 말씀에 근거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노동, 예배, 산행, 성경 읽기와 나눔 등을 통해 섬김과 희생, 공동체 정신을 몸소 배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밀알훈련 참여할 전체 자원봉사자는 133명이다.

▲ 1차 : 36명(교직원 17명, 학생 19명)

▲ 2차 : 51명(교직원 16명, 학생 35명)

▲ 3차 : 46명(교직원 15명, 학생 31명)

우리 대학 '인증대학'+ '재정건전대학' 판정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 최소 요건 확인



한국대학평가원은 지난 7월 21일 우리 대학이 2023년(하반기)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 사전 평가결과 모든 지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 대학은 2028년까지 인증대학의 자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한 2026년도 재정진단결과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25년부터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2023년 3월)'을 마련, 대학의 학자금 지원 여부를 '대학기관평가 인증'(한국대학평가원 시행) 여부와 사립대학 대상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대학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2026년도에는 일반대학 174개교가 인증대학+재정건전대학의 2개 관문을 통과해 학자금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10개교는 미선정되었다.

후기 졸업 29명에 각급 학위 수여 신군(申君) 원우, 기독교상담심리학 박사학위



▲ 신군 원우

2026년 8월 후기 졸업에서 박사 1명, 석사 17명, 학사 11명 등 29명이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신군(일반대학원 신학과 기독교상담심리전공) 원우의 논문은 「기독교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그림의 매개효과」이다. 신군 원우는 중국 출신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졸업, 우리 대학에서 기독교 상담전공으로 석사(22년도)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이성아 교수(NSLB 교육지원단장)는 지난 해 본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학석사(MA, 성경주해전공) 학위를 받았다.

학과별 학위를 받은 인원은 다음과 같다.

- 학사(11명)** ▲성서학과 4명 ▲사회복지학과 2명 ▲영유아보육학과 4명
석사(17명) ▲일반대학원 신학석사 5명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10명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1명
 ▲보육대학원 보육학석사 1명
박사(1명) ▲일반대학원 박사(Ph.D.) 1명

하계방학 단축근무 시행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 7월 27일부터 3주간

우리 대학이 방학 기간 행정 부서를 대상으로 휴서기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기간은 7월 27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매일 2시간 30분 단축, 오후 3시 업무가 마감된다. 냉방 수요가 높은 1주차(7월27일~31일)는 전체 부서가 일괄 시행, 이후 2, 3 주차는 부서별 순환제로 운영된다.

대학은 단축근무 기간에도 학사와 주요 행정업무 및 민원 처리 등 필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구성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직원들은 퇴근 시 PC와 조명, 냉방기기의 전력 차단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분	일자	참여 부서(오후 3:00)	정상 근무(5:30)
1주차	7월27일~31일	20개 행정부서 전체	정상 근무(5:30)
2주차	8월3일~7일	교육, 입림교육, 교학, 입학, 국제교류 학과, 지역사회, NSLB, 사무, 평생	타 부서는 정상 근무
3주차	8월10일~14일	기획, 대외, 혁신, 평가, 대학원, 시설, 전산, 도서, 입림생활관, 한국어	타 부서는 정상 근무



글로벌을 향한 첫걸음

간호사의 꿈을 현실로 그리다

‘글로벌 간호사’

간호학과에 입학 후 막연히 품어왔던 꿈. 별 고민없이 영어 잘 익히고 해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2026 KBU Global Challenge’를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코알라(KOALA)팀은 7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글로벌 간호사의 핵심 역량 배우기’를 주제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전문단체를 탐방하며 세계 무대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역량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다.

첫 방문지인 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에서는 호주 간호교육과 재학생들과 만나 다문화 환경에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글로벌 간호사에게 필요한 시야를 넓혀 주었다.

Concord Hospital에서는 실제 임상실습 환경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지도 간호사의 감독 아래 환자 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기본 술기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 간호가 임상 적응력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방문한 호주한인간호협회(KNAA)에서는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간호사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현장 경험과 취업 과정 등의 팁을 들 수 있었다. 특히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은 글로벌 의료현장에서 의사소통과 팀워크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Sydney Manna Church에서는 해외 공동체의 역할과 문화 적응에 대해 들었다. 유학생과 이민자 대상의 따뜻한 돌봄을 보며, 사람을 섬기는 일은 병원을 넘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어지는 사명인 것임을 깨달았다.

이번 여정을 통해 글로벌 간호사에게는 뛰어난 간호 술기뿐만 아니라 영어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이해, 열린 사고방식과 협업 역량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연차보다 환자의 안전과 팀워크를 우선하였고 의문점은 주저함 없이 질문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다.

코알라팀에게 호주 챌린지가 글로벌 간호사의 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전환점이 되었다. 모두는 이렇게 다짐하였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움의 자세와 넓은 시야 및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준비된 글로벌 간호사를 위해 열심히 도전하겠다”라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잘 준비시켜 준 호주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나와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팀장 윤고은)

이번 챌린지에 함께 한 코알라(KOALA)팀 5인방은 다음과 같다.

▲ 윤고은(팀장) ▲ 박영서 ▲ 안에서 ▲ 이예빈 ▲ 황찬하(전원 2학년)



▲ 시드니대학에서 진행된 호주 글로벌챌린지에 참가한 간호학과 2학년 학우들 (왼쪽부터 이예빈, 박영서, 황찬하, 윤고은, 안에서 학우)

대학입학정보박람회 400여명 상담 7월 23~25일 코엑스



▲ 코엑스에서 열린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교직원들이 입시 지원자와 상담 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7월 23~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은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을 중심으로 21명의 교직원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기간 입시 지원자와 학부모 400여 명이 우리 부스를 방문,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및 시용합학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영유아보육학과와 성서학과만을 목표한 상담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은 “상담자들은 지원 학과의 합격 가능성에 먼저 관심을 보였으며 취업과 기숙사 및 장학금 제도까지 세부적으로 문의하는 추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29명이다. 입학 문의는 신지수 팀장(☎ 02-950-5403)

신학대학원 동문회 임시총회 11월에 총회 갖기로, 동문 50여 명 참석



▲ 신학대학원 동문들이 예배를 마친 후 학교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학대학원 동문회 임시총회가 27일 브니엘홀에서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경 목사(22회) 사회로 개최되었다.

회의는 임시위원장 송창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11월 말 총회 개최와 제정된 회칙은 금일부터 시행하며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준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신대원 동문회의 성격이 재건과 창립이냐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고 관련 자료를 보충하기로 하였다. 임시위원장 송창호 목사는 “총회가 진행되도록 섬겨 주신 동문과 학교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동문 간의 교류와 화합에 노력하겠다”고 인사하였다.

총회에 앞서 가진 예배에서 최정권 총장은 “다니엘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정체성을 지켜 갈 공동체(세 친구)를 만들었다며 오늘 모임이 우리 대학의 정체성에 뿌리를 둔 귀한 모임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전하였다. 강우정 이사장은 “지금 이 나라의 신학대학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 위기 극복에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모교를 위해 기도와 재정적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격려사에 나선 조혜경 대학원장은 무엇보다 신입생 모집에 선배들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최경환(2회) 목사는 복음적 정체성 계승과 후배 양성에 헌신을 다하는 동문회로 거듭나자고 기도하였다.

노곡제일교회 김종환 목사 학교발전기금 1천만 원 후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자리한 노곡제일교회 김종환(35회) 목사가 학교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 목사는 “선배로서 모교를 향한 애정을 실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후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복음 전도자 양성의 의지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경기도 연천 지역 내에 열악하고 힘든 이웃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섬기며 오랫동안 주의 복음을 전해 온 사역자이다.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내 마음의 간짜장



팔월의 폭염 속에서 성서공동체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맛집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배경에서 저마다의 입맛을 가진 이들에게 어느 한 집을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망설여 지지만 간짜장이라 용기를 냅니다.

짜장에 대한 로망은 초등학교 성적표 받는 날 어머니가 데리고 가던 중국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동구 시장 모퉁이 이층의 중국집 짜장면은 언제나 국물이 많았습니다. 볶은 돼지에서 스며 나온 기름이 뜬 짜장 국물과 채소가 목을 넘어갈 때 그 맛은 간짜장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맛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중국집은 일산의 '대박각'입니다. 가시면... 첫째, 기다려야 합니다. 오전 11시 여는데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슨 짜장을 한 시간씩 기다려 먹느냐는 분은 가면 안 됩니다. 저뿐 아니라 이른 더위에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 마감이 빨리 와 제가 나갈 즈음에 이미 대기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짬뽕은 아닙니다. 호불호가 있지만 일단 숙주나물이 많고 불맛도 부족했습니다. 아마 짬뽕 먹기 위해 기다렸다면 억울했을 겁니다. 셋째, 맛있게 드

시려면 다른 메뉴를 첨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풍기나 흑돼지 탕수육을 함께 먹으면 본 메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입안의 미각을 위해 섞어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짜장의 양이 많다는 걸 염두 하셔야 합니다. 넷째, 삼선 간짜장은 짜장에 물이 없이 되직한 편이라 그 점이 개인적으로 매력을 쫓고 간은 센 편인데 소스를 맛보며 넣는 게 좋을 겁니다.

고흐의 해바라기 색이 연상되는 노란 면발에 잘 섞이지 않은 소스를 버무려서 소스 속의 양파조각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평소 남은 짜장에 밥 비벼 먹는 걸 선호하지 않는데 이 소스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받아본 공기중에 가장 작은 미니에 담긴 밥을 섞어 한 끼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더운 여름, 한 끼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먼 곳이 아닌 음식점으로 가는 차 안, 혹은 노상에서 기다리며 나눈 대화나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 짜장의 첫맛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부른 배를 안고 근처 호수 공원을 걷는 게 행복일 겁니다. 우리 성서 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민 조교(기초교양교육과)

「신
념의
민중」

김정민(성서 1)

「완
0호
민중」

민감함의 방향

별일 아닌 말인데도 혼자 오래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 괜히 그 말투나 표정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에 얹게 남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의 반응에 생각보다 쉽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방금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정작 내 상태와 감정은 뒤로 밀립니다.

표정과 말투, 분위기 같은 작은 신호를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각처리 민감성이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름이 무엇이든 그 마음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만 남기도 합니다. 분명 무언가에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유는 흐릿하게만 남아 있는 그런 피로감입니다.

그렇다고 민감하다는 것이 약점은 아닐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힘은,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곁에 있어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민감함이 늘 바깥을 향해서만 쓰이고 있다면, 그건 한 번쯤 돌아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말과 표정에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정작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둔감하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민감함은 바깥의 반응이 아니라, 조용한 소리를 향한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자기 마음의 소리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음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조용한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민감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잃은 것을 찾는 즐거움

최근에 토이스토리 5편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토이스토리 4편이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고, 5편도 재미없다는 평이 많아 걱정하였지만 그럭저럭 잘 보고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참 좋아했는데요, 정말 장난감들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움직인다고 믿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이스토리 영화 시리즈의 큰 특징이라 한다면 아이들이 계속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장난감들은 아이들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공룡 장난감들을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며 찾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잃어버렸던 공룡 장난감은 서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견해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나요? 혹은 더 나아가서 어린 시절의 무언가를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만큼,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내가 잊고 살아가던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도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꿈도 많았고 모험도 좋아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꾸었던 꿈을 그저 어린 시절의 치기roman 치부하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도 언젠가부터 계산하고 내 유익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어린 시절의 열정을 사랑하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리느라 놓치고 있던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할 때 진심으로 즐거웠는지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은 충분해집니다.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 한 학기 동안 수고했던 나를 위로하면서 다시 뜨거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진심으로 꿈꿔왔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세호의

목양컬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담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는 의정부 LH경기북부 사옥에서 직장인들과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 2년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이 시간이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연락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손을 건너 제게 닿았습니다.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던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보내 주세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안에, 다름 아닌 제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LH 직원들은 1년마다 임지를 무작위로 발령받습니다. 집이 워레인 그는 집 근처로 옮길 기회가 있었지만, 먼 길을 감수하고 의정부에 남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배는 매번 대여섯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스스로 불자라 소개한 처장님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예배가 없던 자리에 예배가 생겼고, 복음을 모르던 분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2년을 지나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가 멀리 나가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지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열매를 맺습니다.

7월 둘째 주, 우리 교회가 태국 치앙마이 쑤자이고아원에 스물네 명의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박우진 선교사님 가정이 지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역하러 떠납니다. 치앙마일로 향하는 길과 의정부로 가는 길을 거리도 다르지만, 같은 하나의 부르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 시기에, 치앙마이의 아이들도 의정부의 직장인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치앙마이로, 어떤 이는 수요일의 사무실로, 어떤 이는 가정과 직장 강요로 보냄을 받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은혜는 고이면 특권이 되지만, 흐르면 특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가두지 않고 의정부와 치앙마이로,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5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라미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걷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https://cafe.daum.net/jinseonin/3RLx/72?q=%EC%A7%80%ED%95%98%EB%8F%84+%EA%B7%80%EB%9A%9C%EB%9D%BC%EB%AF%B8&re=1>

이 시를 이끄는 주된 이미지는 ‘소리’이다. 시상 전반에서 소리를 내는 두 존재, ‘매미’와 ‘귀뚜라미’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매미가 높은 가지를 흔들며 당당하게 ‘노래’한다면,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새에서 숨막힐 듯 ‘울고’ 있다.

한여름이라는 배경 속에서 매미는 제 세상을 만난 듯 하늘을 찌를 기세로 노래하지만,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타전을 보내며 자신의 계절인 가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귀뚜라미에게 매미의 소리는 우렁찬 ‘노래’로 다가오지만, 정작 자신의 소리는 아직 노래가 되지 못한 미약한 ‘울음’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울음마저 매미의 압도적인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마침내 가을이 오면, 매미의 여름 노래처럼 자신의 소리도 누군가의 가슴에 진정한 ‘노래’로 가닿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약한 울음에서 마침내 찬란한 노래로 거듭나는 귀뚜라미의 소리는, 고단한 여름날을 견뎌내고 마침내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하다.

전문상담사로부터 분석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다녀오신 학부모님

양육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

대학어린이집은 16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부모 마음 스캐닝: 양육자 무료 심리 지원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하였다.

사전에 심리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사가 전문 장비로 정서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뇌파(EGGP와 맥파(PPG)를 측정 후 누적 스트레스 레벨과 두뇌 활성, 신체 피로도 수치 등을 통해 개인에 적합한 상담 자료를 전달해 주었다. 부모의 마음 건강이 행복한 양육의 첫 출발점인 시대에서 스스로 점검하며 직장가 가정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이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

[기쁨반 이지혜 교사]

온가족 시원한 여름나기에 참여한 가족들이 요리에 참여하고 있다.



다녀오신 가족 여러분

온가족 시원한 여름나기

월계복지관은 25일 16가정을 대상으로 온가족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한 가족들은 수박화채와 감자샐러드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 함께 역할을 나누고 완성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였다.

특히 이번 활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정보까지 접하도록 배려하였다. 복지관 내 시설 안내와 희망 온돌사업, 마음 건강 서비스 등 진행 중인 여러 사업까지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을 높여주었다. [이동재 사회복지사]

유아반 아이들이 하이폴하이에서 물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다녀오신 유아반 아이들

물놀이 체험

꿈빛어린이집 유아반은 7일 창동 ‘하이폴하이’에서 물놀이를 가졌다. 안전 수칙과 놀이를 안내받은 후 물안경, 튜브, 물총 등을 이용한 놀이를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친구들과 물총을 쏘고, 물안경 착용 후 잠수해 물과 친숙해지는 걸 즐기며 서로 협력하는 등 시원하고 재미있는 물놀이에 잘 적응하였다. 이밖에 낚시 놀이와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캠핑 놀이 등으로 놀이감을 활용한 상상 놀이도 즐겁게 임했다. 유아들은 물의 특성과 토레와의 상호작용 및 신체활동을 균형 있게 즐길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목련반 강옥경 교사]

태국 치앙마이 쑤자이고아원의 단기선교에 참여한 성도들



성서대학교교회

단기 선교

성서대학교교회는 7월 12~18일까지 사역자와 청소년 및 청년과 장년을 포함 23명이 태국 치앙마이를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선교지인 치앙마이 쑤자이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예배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활동도 함께하며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을 통해 우리 선교팀 모두가 큰 사랑을 누렸고,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에서 많은 도전을 주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성서대학교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확인한 시간이 됐다. [홍성진 부목사]

아동들이 CPR 아동 안전교육을 실습하고 있다.



다녀오신 아동 여러분

아동 CPR 안전교육

본 센터는 27일 지역 아동 20명에게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단에서 진행하는 아동 CPR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모형을 활용한 직접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배우고, 위급 상황 시 아동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익혀주는 과정이다.

아동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안전 의식까지 키워 주었다라며 소감으로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이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아랑 센터장]

영아들이 1층 물놀이장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여름 물놀이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6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원내에서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1 주차에 워터테이블 놀이와 물총, 낚시, 물풍선 놀이 등을 가졌다. 영아들은 컵과 바구니에 물을 쏟거나 손과 발로 흐름을 탐색하고 움직여 물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2 주차는 에어바운스 풀장 물놀이와 색깔 물 지렁이 놀이, 볼풀공 풀장 등으로 놀이를 즐겼다. 차가운 촉감과 말랑한 색깔 물 지렁이와 부드러운 거품 물감을 느끼며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영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선 교사]

양성평등을 위한 부모의 공동육아 문화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양성평등 문화

‘돌봄은 반반, 행복은 두 배!’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6월 20일~7월 4일까지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3회 진행되었다.

아빠는 요리체험을, 엄마는 힐링 프로그램과 가족 기질 이해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3회째에는 가족들이 ‘뚝뚝뚝 체험 놀이터’에서 중장비 체험과 건축 놀이, 버블쇼도 즐기며 뜻깊게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업이 양성평등 돌봄 문화가 가정에서 실천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학부모들이 노원구 급식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해 취지를 소개받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학부모 급식관리 현장방문

상계5동어린이집은 28일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현장방문교육을 진행하였다. 담당자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조리실 위생과 식재료 관리, 안전한 개인위생까지 살펴보았다.

만 3세반 ‘어린이 방문 영양교육(인형극)’도 함께 참관하며 인형극이 전하는 식습관과 먹거리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현장방문교육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에 신뢰감을 높여 준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영유아들이 물놀이장에서 놀이를 시원하게 즐기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여름 물놀이 체험

늘사랑어린이집은 13일~15일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이폴하이’ 실내 물놀이장으로 현장 체험을 다녀왔다. 물놀이 안전 수칙과 준비운동을 가진 후 물놀이가 시작되었다.

폭염의 시기에 물의 촉감이 주는 시원함에 영유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렸다. 친구와 간식도 나누고 점심을 먹는 과정에서 무더운 여름철에만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모두에게 쌓여갔다.

[신나는반 김현애 교사]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진치료 집단상담이 진행중이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집단상담

월계우리통합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진 활용 집단상담을 6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갖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시각 매체로 표출, 트라우마 치유와 긍정 에너지로 이끌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3회에는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각적 자극을 경험해 보는 외부 출사를 진행하였다. 미술관 공간과 주변의 멋스러운 풍경을 렌즈에 담고 정서와 내면으로 시각화하는 여정이 되면서 집단상담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를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해주었다.

[김지수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6월 20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평촌드림교회 1000만원 (운영)

노곡제일교회 1000만원 (운영)

성서대학교회 600만원(운영)

경성교회 210만원(운영, 장학)

초대교회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밀알교회
1구좌 김예진 나민석 배은휘 송민규 송수옥 심두한 이상진 이종근 이진경 이창호 주성현 홍명수 홍원기 황보혜영	3구좌 박기혁 양혜영 홍진옥 4구좌 박주은 5구좌 강명희 10구좌 황보원	1구좌 서효정
2구좌 김복녀 박성주 이상복 이유미 장재원	부설기관 10구좌 장수진	일 반 1구좌 김순규 백도기 JINGUOHUA 5구좌 이천화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밀알교회
5천원 김남혜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술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공승천 광미화 곽원균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미진 김민서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연정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철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원 김정희 김정희 김진 김진숙 김진영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철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나예린 남궁화 남범수 남성휘 노정식 노정현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희정 문성령 문수란 문정예 문홍철 박경수 박경진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모 박 원 박윤복 박재신 박정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향식 박현숙 박형택 박혜인 방지연 배은휘 배재원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서영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 용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기철 송민규 송지민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혜 신지는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성민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지환 양혜영 엄미자 엄보라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영 오희호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지준 윤현중 이경일 이광석 이다원 이대환 이동혁 이두현 이문성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분옥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선정 이세은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안나 이연신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윤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진 이진경 이창호 이철승 이하람 이하준 이하철 이현우 이현섭 이현지 이혜란 이혜정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상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은희 장익심 장현자 장호성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정다연 정선도 정소영 정슬기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주영 정지현 정진영 조민을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조혜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은 최예인 최은빛 최재봉 최중순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한서희 하진하 한해우 허영숙 홍명수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홍혜경 황승호 황에린 설에스터 /황보혜영/손갑은교회 1만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박지윤 구연민 국소영	권오진 길득희 김규리 김복녀 김성아 김성애 김성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철 김정복 김태용 김현진 류충열 민성희 박민주 박성주 박윤경 박재송 박준호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신성철 신정성 신화영 안선례 양연주 유의숙 윤광길 윤덕진 윤영원 이광삼 이권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숙 이선경 이선영 이슬강 이승찬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익봉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정인숙 조소정 주요한 최문정 최수지 최인희 최현우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강해돈이 /등대교회/생명의빛교회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은선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성인선 양연선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전지혜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최은희 탁윤석 탁현정 태지선 홍진옥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인순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예원 임수경 5만원 강경옥 강성훈 김기숙 김명자 김진경 남영란 남정주 남희경 박정하 박찬혁 서명주 송복순 신상훈 안효진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지는 최경환 /성서밀알선교회 6만원 서성숙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중숙 백승우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인영 이정원 장은정/이레장학/가성교회 /주향교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20만원 김인화 박예찬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성철 김윤영 김정녀 박기범 심희정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임경배 장영철 전계화 정현규 조윤정 한승천 한정화 황상기 홍강훈 황미숙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수진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문순용 박유순 박은영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이동훈 이만효 이미영 이선미 이승진 이용구 이은영 이지영 이재은 이혜란 임정용 장영순 조복임 조율이 최경애 최영숙 최유승 함은애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4만원 전옥순 5만원 김남숙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6만원 정주하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진 김애란 김지환 김춘하 김형중 김호현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인혁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서한나 신 군 양승원 유성준 유연자 이가영 임수아

기부자 명단

임재혁 장경순 전귀선 정옥환 조성찬 진달래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2만원 정우진	40만원 박순정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유진 김창호	1만3천원 정태성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경희 김춘배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꿈꾸는교회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반종원 배민정 안 호 오철송	1만8천원 권은성 김근열 김도매고 김미정B 김봉춘 김선교 김성철 김애숙	김영숙B 김유미 김은미 김일선B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이지민 강길정 정지순 정순애	김지윤 김현미 김희현 민영빈	2만원 강영애, 신한성/이준구, 안춘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정지용 조철남 최난영 한정숙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주현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주)삼삼전기관리공사
3만원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박천수 서영우 서 훈 손원자	4만원 오근수	/주)에이스외식산업
4만원 김덕원 윤혜진	안봉숙 안종인 양태환 오경모	5만원 이경식 이우근 이형백 한금례	/도새기방
5만원 구광명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용정자 윤도진 이관영 이길우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바르코복된교회/열방교회
박상민 신재윤 양다아 유미나	이무현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중앙성서교회/바울선교회	3만원 동신자원/우리교회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임용택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의정부좋은나루교회
전영호	장은정 정나영 정선희 최인숙	15만원 이혜선	/주식회사 이수전기
6만원 권순범 신지수	한성실 한순애 허진순 황서린	퇴계원제일교회	4만원 플랜팅스즈
7만원 임환석	황시은	1만원 유재란	5만원 가학교회/녹수교회
9만원 김병수	2만7천원 강유진 김사천 천재우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다드림교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3만6천원 고경숙 구영신 김경례 김동석	평화교회	/사랑샘교회/상일교회
김경숙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김배열 김성진 김인자 김희자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평안교회(신병수)/행진교회
문무열 박태용 배진형 신금주	박 선 박인숙 박효민 반해빈	중앙교회	(주)바다나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반해성 석경순 선종인 윤재택	1만원 윤은정	/주)이레E&C0레디디자인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이경미 이행자 장근문 장기영	1만원 김희경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정락은 조병하 최영태 최용석	화도드림교회	/동산교회/두암산업(주)
최영태 최옥열 최은희 현우석	현호민	1만원 권순실	/미사목민교회/상록교회
홍소윤/김정원(신)	김주아 박은경 유형창	5만원 화도드림교회	/섬기는교회/성복중앙교회
/김정원(영)	김춘환 김현석 송재철 심화심	효성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청평교회
11만원 최지은	이숙영 이정임 조한나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효숙 홍성일	20만원 전하석/인천제2교회
13만원 김웅기	김상은 김일선A	2만원 한옥경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5만원 강규성 김덕현 김은호 김희수	김용희 김순옥 김영현 김원태	일 반	40만원 교수부
한진호	김유미A 노봉환 문명래 박세진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명호	45만원 우리회
20만원 김성옥 김주아 김창원 박 선	박은우 반세호 서수희 이병윤	김미라 김범설 김삼례 김석균	50만원 동서환경(주)
안정선	임성일 전명진 최대만 최순남	김양권 김예람 김유벽 김인호	210만원 경성교회
23만원 박태수	한진호	김천수 김향숙 김 현 김혜란	1000만원 노곡제일교회/평촌드림교회
25만원 이강동	10만원 김용희	김효진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지역사회
30만원 임지영	18만원 이경신 이미정	박영미 박영희 박혜신 백은정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서애진
35만원 최선희	27만원 김효정	서민석 엄정호 오미라 오현숙	송유정 오동준 유주연 유희주
50만원 강우정, 강 진	1만원 열매맺는교회	유금례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102만원 반종원	2만원 금촌성서교회	이관현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2만원 허성보
부설기관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이상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3만원 구세관 문유나 박미라 오윤아
3만원 권효진 박철순 안미희 장나혜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임동화 임숙자 장병길 전형식	4만원 윤종찬
5만원 이인경 차도영	/푸른동산교회	조동빈 조목장 조성민 조연상	5만원 이지연 진양희
/월계지역아동센터	100만원 초대교회	조여원 조은혜 진윤승 최경숙	7만원 김선화
10만원 김선영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세빛교회	최범식 최영훈 최은실 허수보	35만원 오동준
15만원 권경아 지주나	5만원 세빛교회	황영수/한국인재인증센터	
20만원 김신덕 차 건	수원교회	2만원 강명옥 강상래 권소영 김옥석	소계(20260621~20260720)
권선제일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김동석 김상현 김성래 김윤숙	59,414,000
1만원 이상규	2만원 반요셉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누계(20260301~20260720)
동광교회	어린이교회	서경숙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369,696,262
1만원 김복례 한미희	1만원 김경희	이연식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밀알교회	3만원 임운창	임홍길 장만희 정주아 정 진	
1만원 서효정	일동성서교회	조혜령 최국영 최준서 최지연	
삼일성서교회	1만원 유현석	한동훈 허정안 홍춘호	
1만원 김초롱 오성균 정혜란 한금순	2만원 김의남 박문수	/행복한교회	
서문교회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3만원 장문석 정미옥 추영철	
1만원 강선에 윤인호	장자교회	/에덴종말사	
성서대학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김민경 석지현 이천화 조예영	
9천원 김홍필 박지숙 이경환 정종승	5만원 장자교회	주은자	
정현숙 차옥제 탁경미	주향교회	10만원 김옥례 안순복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유종엽 이가은	1만원 유병우	11만원 한소망교회	

한국성서대학교 7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29,166,500원)

노곡제일교회 10,000,000원 | 평촌드림교회 10,000,000원
 성서대학교교회 3,500,000원 | 경성교회 2,000,000원 | 초대교회 1,000,000원
 우리회 597,000원 | 동서환경(주) 500,000원 | 중앙성서교회 500,000원 | 교수부 400,000원 | 김인화 200,000원
 윤기성 100,000원 | 이희숙 100,000원 | 서부자 100,000원 | 이형백 50,000원 | 김남혜 5,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43구와 연간 납입예정액 5,160,000원)

10구와 밀알교회 | 5구와 박훈희, 안정선, 조하은
 2구와 김진홍, 김상현, 신지영, 이지영, 이주혁, 정하영, 최준서 | 1구와 김예랑, 박하은, 오지은, 홍명수

일시납 누계(2026.3.1~2026.7.24) 226,955,169원 | 약정자 누계(2026.3.1~2026.7.24) 363구와 | 연간 납입 예정액 43,560,000원